

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석진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EU 원유생산조절 시작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유제품시장에 대한 지지수단의 일환으로 회원국 낙농조직들의 공동원유생산계획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즉, EU의 원유생산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봄철에서 여름의 6개월에 걸쳐 원유공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을 허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한 담합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금번 이 같은 조치는 EU의 공통농업정책(CAP)의 시장규칙(Market Regulation) 제 222항에 의거 예외적인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낙농관련 생산자조직은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EU 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원유의 생산조절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낙농협동조합 및 다른 형태의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도 계획생산을 허용하는 추가적인 규정도 통과시켰다.

금번 이 같은 조치의 효과는 EU 회원국 중 어떤 나라가 계획생산수립에 동참할 것이며, 그 나라의 낙농관련 조직들이 얼마만큼 이에 동참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생산조절이 어디까지나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생산자조직 또는 회원국이 일시적으로 원유생산을 줄임에 따라 생산조절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국에게 시장점유율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EU 협동조합들은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원유생산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즉, 최근 유제품시장의 수급상황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EU 회원국의 협동조합들이 원유생산을 감축한 낙농가에 대해 높은 유대를 지불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Gmundner Milch 유업은 납유농가가 지난해

생산량에 비해 적은 양의 원유를 생산할 경우 일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지난해에 비해 생산을 늘린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기준유대는 리터당 약 380원이며, 전년 대비 월간 기준으로 5~10%를 감산할 경우 리터당 9.8~27.8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증산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산한 농가가 받는 인센티브의 약 두 배에 달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즉,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을 5~10% 늘린 농가에 대해서는 리터당

29.5~57.3원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올 해 초 다국적기업인 Friesland Campina도 2015년 12월 대비 생산을 늘리지 않았거나 감축한 농가에 대해 리터당 26.2원의 잠정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2016년 1월 초에서 2월 중순에 걸쳐 가공시설이 부족한 유업체에 납유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되었다.

출처: Dairy Market Weekly 102호(2016. 4.21), AHDB(Dairy)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인구증가가 세계 유제품수요 주도할 것

Mark O'Keefe, (2016. 3.30)

2030년까지 인구 12억 명 증가, 그 중 97%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에서...

최근 세계 유제품시장의 공급불균형의 영향으로 2015년 미국의 유제품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와 업계의 분석가 대다수는 미래에 세계유제품무역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같은 확신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측을 뒷받침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끊임없는 인구 증가이다. UN 인구통계국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인구가 약 12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증가인구

의 3%(약 3천5백만 명)는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4대 주요 낙농생산국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97%에 해당하는 나머지 11억 명 이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구의 증가추세는 곧 미래의 수요증가를 의미하며, 그에 따른 유제품 수출기회가 미국의 국경 밖에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결과다.”라고 USDEC의 시장조사·분석 선임부사장 Ross Christieson은 내다 봤다. 또한 “인구증가와 개발

도상국의 소득증가,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결과는 지난 10여년에 걸친 유제품 무역증가의 주된 요인이었으며,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유제품무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Christieson씨는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 보고서(미국의 유제품수출: 2020년의 전망: U.S.

Dairy Export Prospects: Looking out to 2020)를 통해 세계 유제품수요에 대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0년까지 복리로 계산한 국제 유제품무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출처: USDEC(2016, 3.30, <http://www.usdec.org>)
번역: 낙농육우협회 허재평 서기
감수: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중국, 유제품 직구(直購)에 11.9%의 관세부과

최근 중국정부는 해외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직구(直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제품의 중국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2016년 4월 8일자로 인터넷구매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1.9%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중국 당국은 종전까지 수입이 이루어지던 상품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내림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4월 초 현재 상당수의 수입물품이 주인을 잃은 가운데 약 178억 원 상당의 시유도 그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같은 조치가 처음 내려졌을 때 인터넷을 통한 직구(直購)가 중지되었던 초고온살균유(UHT) 및 분유제품의 직구(直購)를 통한 수입은 현재 다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어린이용 분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 제품등록이 필요하며, 이에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분유의 약 3분의 1은 인터넷직구(直購)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직구(直購)에 대해 11.9%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직구(直購)를 통해 구입하는 유제품가격과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됨에 따라 중국시장에 대한 유제품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출처: Dairy Market Weekly 102호(2016, 4.21), AHDB(Dairy)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